

## 특집 논문

#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 문학

김옥숙, 『흉터의 꽃』(2017)

이행선 \_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옥숙의 『흉터의 꽃』(2017)이 한국의 ‘원폭 문학’으로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사회분위기하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옥숙의 장편소설 『흉터의 꽃』이 출간되었다. 이 소설이 간행된 2017년 5월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달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특별법’ 시행이나 원폭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 해에 나온 소설은 무엇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 또한 구술 증언집과 달리 소설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이래 진실과 공감을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 전달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하던 때에 산출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전략과 효과는 더욱 구명(究明)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동일본대지진, 세월호, 김형률, 히로시마, 합천

DOI: <http://dx.doi.org/10.31008/MV.39.4>

## 1. 들어가며: 동일본대지진과 세월호

이 글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옥숙의 장편소설 『흉터의 꽃』(2017)이 한국의 ‘원폭 문학’으로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03/11)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연합뉴스, 2014/03/08 참조). 한국에서도 방사능 오염과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경주 지진(2016/09/12)은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고 막대한 피해와 이재민을 낳은 포항 지진(2017.11.15)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원전 가동 실태와 문제를 지적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천공의 벌(天空の蜂)』(1995)이 2016년 9월 한국에 번역됐고, 강진과 핵발전소 폭발을 다룬 영화 <관도라>(2016.12.7)는 경주 지진과,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불안이 표출된 결과이자 안전사회 구축을 바라는 사회적 염원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로 국한되었듯(강은주 2012, 227), 그 ‘불안’은 미래의 통제 불가능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이는 역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는 핵 피해자가 없는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거론되지 않는 그들의 존재가 갖는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의료 피폭과 아스팔트 방사능 등 생활 방사능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미래의 위험

을 대비하는 우리 자신의 ‘불안’만이 강조될 때, 이미 상존하는 피해자의 현실은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그들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주지하듯 세월호 사건(2014.4.16) 이후 한국인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더 민감해졌다. 그만큼 사건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촉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신속하게 언론화되었고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재난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안별 관심의 강도와 해결 순서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각 피해자들은 사회적 관심의 상대적 격차에 따른 박탈감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때,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참사 해결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시위를 했었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배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의 한 관계자는 정말 일이 잘 풀린 경우라고 말한 바 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워낙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조금씩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비추어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조류인플루엔자(AI), 경주·포항 지진,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기저귀 등 케모포비아(Chemophobia),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유가족의 목소리는 전혀 사회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 투쟁이 중심인 반핵운동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広島·長崎) 원폭투하에 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이목을 끌지 못했다. 식민지배와 전후 청산의 문제에서 ‘위안부’는 한일 양국의 주요한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지만, 전쟁 피해자의 한 축인 원폭 피해자의 실상은 사실상 거의 공론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반핵 투쟁에서도 실제 핵 방사능 피해자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는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다.

동일본대지진·경주 지진 이후 반핵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옥숙의 장편소설 『홍터의 꽃』이 출간되었지만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소설이 간행된 2017년 5월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sup>1)</sup>(2016.5.29 제정)

1) (약칭: 원폭 피해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 시행된 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원폭 피해자의 호소와 경험이 공적 언어화 되어 미디어의 공적 이슈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그 원인이 피해자의 전달력이 떨어진 때문일까.

세월호 사건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국가의 공적기록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작업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진실에 가까운 글을 쓰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특히 다수 독자가 르포르타주 성격의 글에 공명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의 하나로 르포적인 기록물이 조명을 받았다. 이때 소설은 르포, 시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았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세월호 3주년경에서야 좀 더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피해자의 전달력이 문제가 아니라 침묵하는 이들을 증언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의 억울함과 바람을 최대한 대변하여 공론화하는 매개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매개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뉴스의 과잉 시대, 뉴미디어의 언론 환경, 다양한 형태의 기록 미디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언론화, 소설을 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입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로한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사회적 이슈 중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 대중의 특성상,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엇을 들으며,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독자의 태도에 좌우된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공적 지원’은 피해 사실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제주 4·3, 한국전쟁의 민간인학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위안부’ 등의 진상 규명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술 방법론이 중요하게 부상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국민 다수에게 전달되면서 공감을 자아내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일종의 ‘증언의 시대’가 열리는 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다. 정부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원폭 피해자의 사회적 의제화를 가로막는 주요 조건 중 하나였다.

사실 기억은 당사자와 더불어 남이 함께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피해자들이 그것이 자기 개인만의 특별한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권운동가란 남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인 양 복원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연구자의 작업도 그런 것이다. 내가 당시 유족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도, 그들과 함께 기억해주기, 그들의 사적이고 단편적인 기억들을

전체적 기억, 국민적 기억,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신해서 기억해주는 사람, 혹은 개별적 기억을 집단적 기억으로 바꾸고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으로 자처했다. 개인들의 파편화된 기억이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이 되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셈이다(김동춘 2013, 80).

한국전쟁 학살 유족을 접한 사회학자는 그들의 증언을 집합적·공적 기억화하고 역사의 장면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조사위가 구성된 사건과 달리 원폭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의 제대로 된 구술 정리작업도 2003년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종전 이후 해마다 ‘분단 ○년, 광복 ○년’ 등의 이름으로 기념식이 열렸지만 피해자가 외친 ‘원폭 ○년’은 못했다(동아일보 1988/08/13, 9 참조).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조약에 양국간의 모든 청구권이 해결된 것으로 명시되면서 원폭 희생자의 배상 문제가 해소되어 버렸고 한국 정부는 구호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반핵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운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에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졌다. 그래서 2017년 5월 ‘특별법’이 시행된 사실도 잘 모르는 사회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와 고통을 폭로하는 김옥숙의 소설 『흉터의 꽃』이 발간된 것이다. 당사자의 옆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해에 나온 소설은 무엇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 또한 2003년경 이래 간간히 진행된 구술 기록작

업의 증언집과 달리 소설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이래 진실과 공감을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 전달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하던 때에 산출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전략과 효과는 더욱 구명(究明)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신사를 고민한 이소마에 준이치가 “역사의 무대에서 말살되는 사자(死者)와 희생자. 우리 사회는 이런 소거를 얼마나 반복해왔을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자(死者)의 유산을 전해주는 공공적 행위와 그 목소리를 ‘번역’하는 기술”(이소마에 준이치 2016, 8-27)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구적 위험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

## 2. 원폭 피해자의 구술과 고생담

소설가 김옥숙(1968-)은 장편소설 『흉터의 꽃』(2017)을 쓰기 위해 3년 전 경상남도 합천 지역을 찾아갔다. 합천은 저자의 출생지, 고향이자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릴 만큼 원폭 피해자가 많은 지역이다. 작가는 합천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원폭 피해자와 면담하고 소설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소설집의 후기 “작가의 말”에서 집필 초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회했다.

내게는 꿈의 공간으로 남아 있는 황강이 앞서간 나의 선조들에게는



눈물의 강, 한의 강, 상처의 강, 흉터의 강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 소설을 쓰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내 고향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린다는 사실도, 한국의 원폭 피해자가 합천에 가장 많다는 사실도, 합천에 원폭복지회관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내 아버지의 고향이 일본 히로시마인데도. 내 아버지가 원폭 피해자인데도(김옥숙 2017, 479).

작가는 중학교 시절도 합천에서 보냈지만 합천이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인지 몰랐다. 게다가 아버지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였지만 딸인 작가는 그 내막을 알지 못했었다. 이 얘기는 김옥숙은 원폭 피해자의 자식이지만 ‘건강한 원폭 2세’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원폭 후유증을 겪지 않았고 부모가 원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는 어른이 되어도 한국인 원폭 피해의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저자가 합천과 원폭을 인식하게 된 경위는 소설에 나타나 있다. 무명 소설가이자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 K가 전두환 비자금 추정 뉴스를 보면서 전두환의 고향이 합천이고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는 사실을 주인공 정현재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K는 주인공의 고향도 합천이니 “원폭 소설을 써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때 시간적 배경은 ‘원폭 투하 70주년’인 2015년이였다. 이는 저자가 대략 3년 전부터 집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작업을 하면서 작가가 원래 정한 소설의 제목은 ‘흉터의 꽃’이 아

나라 “검은 강”이었다. 그에게 고향 합천 ‘황강’은 “어린 시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토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었다.” 반면, 식민지 시대 “히로시마로 간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마주한 강은 황강이 아니라 검은 재를 품고 흐르는 히로시마의 ‘검은 강’이었다”(매일신문 2017/06/10). 이처럼 원폭을 당한 히로시마의 ‘검은 강’이 애초의 소설 제목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원폭 자료를 찾아 읽던 중 원폭의 비극을 생생히 그려낸 나카자와 케이지(中沢啓治)의 만화 〈맨발의 겐(はだしのゲン)〉<sup>2)</sup>에서 그림으로 남겨져 버려진 사람의 비통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대목을 접한다. 김옥숙은 “그림으로 남겨져 보여주겠다는 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 기필코 기억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말”(김옥숙 2017, 477)로 해석했다.

이렇게 하여 ‘검은 강’이 아닌 원폭 상흔의 흉터를 기억하는 『흉터의 꽃』이 탄생했다. 원폭 피해자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고 공적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작가의 기획 의도가 명확하다. 그 기억의 범주와 성격은 당대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작품은 세월호 사건 이후 착수되었다. 재난의 피해자와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져나가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기억

2) 원폭을 직접 체험한 나카자와 케이지의 만화 〈맨발의 겐〉은 1973년 주간소년 〈점프〉에 연재 개시, 1976년 영화로 제작되었고, 1980년 8월 그림책으로 발간되었으며 1981년 8월 〈가극〉으로 공연되기 시작했고 1983년 6월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후 1987년 6월 애니메이션 〈맨발의 겐 2〉가 완성되었다. 이 만화는 한국에도 번역돼 판매되고 있다(나카자와 케이지, 2002).

의 사회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재난을 목도한 대중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당시 유족을 비난하는 집단이 등장하고 사회적 갈등이 비등해지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이며,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했다.<sup>3)</sup> 사정이 이러할 때,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원폭 피해자의 외침을 기억화하는 작업에 뛰어난 작가 역시 원폭복지회관과 각종 모임에서 만난 각 증언자의 파편적인 기억과 염원을 재조합하고 전달하는 서사 전략과 관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공 정현재는 소설가이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다. 그는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아이(정채연)를 갖게 된다. 아내는 3년 전 교직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재는 친구 K를 만나 우연히 합천의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정성태는 지독한 알콜중독자였다. 아버지를 피해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을 한 그가 소설가이자 장애아의 아버지가 되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폭을 당했다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원폭 70년에 고향 합

---

3) “김 작가는 막상 소설 출간 후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 부끄럽고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또 소설 속 강분희 할머니는 자신도 원폭피해자이면서 자식에게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갖고 사는데, 피폭 피해가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책 판매금액의 30%는 원폭환우회 기금으로 기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영남일보 2017/08/02).

천을 다시 찾아가면서 이 소설은 시작된다.

작가 김옥숙의 소설 작업이 본인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흉터의 꽃』은 소설의 주인공이자 소설가인 정현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작품 설정이다. 이때 정현재는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찾아 아버지가 피폭자인지 확인하는 한편 집필을 위해 회관 사무장에게 원폭 피해자분들의 삶을 듣는 구술 작업을 요청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회원 등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해 여부 판명은 지연된다. 따라서 작가는 『흉터의 꽃』을 정현재가 구술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폭과 피해의 실상을 알아가는 서사와, 정현재가 직접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이야기하며 그토록 부정해왔던 아버지와 장애를 겪고 있는 자신의 딸이 원폭 피해자라는 것을 수용하는 서사로 대별하여 전개하는 전략을 취한다. 요컨대 『흉터의 꽃』은 아픈 원폭 당사자의 구술생애사와, ‘건강한 원폭 2세’(정현재)의 생애라는 두 서사의 축을 통해 자신이 ‘건강한 원폭 2세’임을 몰랐던 ‘장애아 아버지’(=정현재)가 ‘아픈 원폭 피해자’를 이해하게 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배치하에서 작가 김옥숙은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두 축에서 전자인, 정현재가 아픈 원폭 피해자를 만나고 증언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구술생애사의 서사를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는 두 명의 원폭 피해자가 증언자로 등장한다. 강분희는 원폭 1세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인 박인옥은 강분희의 딸로서 원폭 2세이다.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가족구술사라

는 생애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본격적인 증언집의 시작을 알린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2005, 증언: 2002.11-2003.3)은 증언자의 피폭 경험을 원폭피해자들의 생애 전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정근식 편 2005, 34).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2008, 증언: 2004.11-2008)은 피폭 구술자 20명이 왜 그 장소에 있어야 했는지 역사적 의미를 묻는다(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6).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2011, 증언: 2011.4-11)는 일본에서 나온 원폭 체험이야기며 대체로 ‘피폭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에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일하게 된 계기나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수준(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475-476)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들 기획의도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대담자들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확장해보면 ‘피폭의 순간’만을 다룬 문학작품이나 증언을 극복하고 ‘도일 이전, 이후, 피폭 당시, 귀국, 귀국 이후의 삶’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희생자를 온전히 대변하고 이해하며 공적 기억화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작가가 한국에 원폭의 역사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가족구술자의 생애사 서사전략을 택한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구술은 경험과 시각에 차이가 있고 증언의 내용과 구성 및 깊이가 다르며 그 양은 현실적으로 적고 파편적이다. 가족구술사를 차용한 소설의 형식은 개별 구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독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의 채택 배경에는 소설이 쓰인 시점의 영향도 감안되어 있다. ‘원폭 70년’이 함의하듯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다양한 피해자상이 존재한다. 세대 차이와 원폭 후유증의 유무에 따라 상이한 피해상과 삶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장편으로 서사화 하여 피해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작가는 피폭 모녀를 증언자로 내세웠다. 여성을 내세워 피폭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홍터의 꽃』은 기존 남성 중심의 구술이나 피해자상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가치도 있다.

【 가족의 세대 구성 】

- 1대(원폭 1세): 강순구(남편, 천식·피부병)-내전댁(아내)
- 2대(원폭 1세): 강분희(딸, 얼굴 홍터), 강태수(아들, 신부전증·피부암-자살), 강태복
  - ☞ 강분희 결혼사 - 초혼 실패(死産) 쫓겨남, 박동철과 재혼
- 3대(원폭 2세): 강분희의 자식인 박인규(病死), 박인옥(대퇴부무혈성괴사증), 박인우(회사원)
  - ☞ 박인옥 결혼사 - 초혼: 백종수, 재혼: 슈퍼주인, 이혼
- 4대(원폭 3세): 박인옥의 자식인 백진수(뇌성마비1급장애)와 백진호(회사원)
  - ☞ 백진호 - 송현서와 결혼(백해인 출산)

‘이민 이전, 피폭, 귀국, 이후의 삶’로 구성된 소설의 시간적 배경에서 ‘이민 이전’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토지조사사업으로 빈곤해진 합천의 강순구 부부가 도일하게 된 부분이며, ‘피폭’은 히로시마에서 15년 동안 정착해 살고 있는 강순구 부부와 그 자식인 강태수와 강분희가 피폭을 당하는 장면이다. 이 두 대목이 소설 초반

에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전개된 이후부터 소설의 모든 내용은 귀국 이후 한국에서의 삶으로 채워진다. 소설은 식민지 합천의 역사적 지식과 구술자의 체험적 증언이 절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서사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형국이다. 구술자 강분희는 원폭 1세대이고, 박인옥은 원폭 2세대라는 점에서 작가는 원폭 1세와 2세를 모두 소설에 담고자 했으며 증언집과 달리 귀국 이후 한국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흉터의 꽃』은 원폭 생존자와 그 후손의 고생담이다. 소설의 기획 의도가 한국사회에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데 있다면, 당사자가 전 생애에 걸쳐 겪는 원폭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 구성은 식민의 역사를 환기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전략에 따라 독자 앞에 강분희와 박인옥의 참혹한 인생사가 펼쳐진다.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강분희는 16세의 나이에 전신화상의 피폭을 입었다. 특히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다. 아버지를 따라 귀국한 분희는 마을에서 문둥병자 취급을 받다가 간신히 결혼을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방사능의 영향 때문인지 두 차례나 유산(流産)을 하고 쫓겨난다. 일본에서 친분이 있었던 박동철과 재혼 이후 인규, 인옥, 인우가 태어났다. 하지만 어린 인규가 원인모를 병으로 급사(急死)하자 따뜻했던 박동철도 전 남편처럼 돌변해 분희를 구타하고 집을 3년이나 나가 버리는 등 폐인이 되어 버린다. 분희는 박동철의 전처(前妻) 아들인 창호의 눈치를 보며 친자식을 키우지만 창호는 분희를 막 대할 뿐이다. 3년 만에

나타난 동철은 피폭 후유증으로 왼쪽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상당한 병원비를 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 강분희는 인구의 죽음이후 난폭해졌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깊이 아껴주고 사랑해준 동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대목에서 구술을 중단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죽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녀는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서 딸 박인옥을 소개해준다.

박인옥은 머리가 좋았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업한다. 방직공장 정방기사인 백종수와 결혼하여 백진수, 백진호를 낳는데, 첫째들 백진수가 뇌성마비 1급 장애였다. 이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고 퇴사했으며 도박과 여색에 빠졌다. 게다가 인옥은 관절이 녹는 ‘대퇴부무혈성괴사증’(원폭 후유증)에 걸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아이들과 자살을 하려던 인옥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이혼을 한다. 간병사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슈퍼주인과 재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편의 아이들은 인옥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적인 욕을 했으며 남편은 자신 몰래 1억 대 출을 받았다. 빚을 떠안고 다시 이혼을 한 인옥은 파산면책을 받지만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다시 간병일을 시작한다. 그 사이 합천에는 원폭복지관이 생기고 연로한 어머니 강분희가 입소하게 되는데 그때 인옥은 대표적인 원폭 2세 운동가인 김형률을 만나게 된다. 김형률 사망 이후 비로소 활동에 가담하게 된 인옥은 ‘원폭환우 2세’ 3대 회장이 됐다. 결론적으로 정현재는 2015년경 환우회 회장과 대담을 나눈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여성의 삶은 사회적 멸시, 시어머니의 구박, 사산(死産), 유아 사망, 남편의 폭력, 남의 아이 양육, 이혼, 원폭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병, 병원비, 빈곤 등으로 점철돼 있다. 피폭이나 전쟁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훨씬 힘들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작품에서 “원폭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차별, 낮은 교육수준, 병마와 빈곤의 악순환하에서 피폭여성의 생활의 토대는 가정이다. 가족의 지지가 대단히 중요한 데 오히려 가정문화는 남편의 폭행, 본처 자식의 폭력과 냉대로 왜곡되어 있다. 주인공 정현재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처럼 이 남성들은 폭력과 술중독자의 전형이다. 한국은 1983년에야 가정폭력 추방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1997년에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될 정도로<sup>4)</sup> 가정폭력이 방치되어온 가부장적 사회였다. 이러한 풍토에서 ‘출산 실패, 유아 사망’은 술중독과 폭행의 이유로써 합리화되었다. 질병, 사건, 이혼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원폭 피해자 여성은 ‘병과 빈곤, 폭력’의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작가는 이를 예민하게 포착하여 가정 내 폭력의 양상을 퓌진하게 전달하는 데 힘썼다.

---

4) 1983년 ‘여성의 전화’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한국 최초로 실시한 아내구타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708명의 42.2%인 299명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실이었다고 대답한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253-265).

그런데 피폭 여성의 고생담의 부각은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폭 남성의 피해상’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남성의 폭력성이 강조될수록 원폭이 남성의 도덕체계 붕괴를 촉진시키는 데 끼친 영향력이 궁금해진다. 강순구가 자신이 도일한 탓에 가족들이 원폭을 당했다는 자책감에서 소처럼 일하다가 죽은 것과 달리, 소설에서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존재인 강태수(강순구의 아들)는 신부전증과 피부암을 겪고 자식이 죽는 충격 속에 자살하고 만다. 강분희 남편 박동철도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다. 정현재는 술꾼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은 것만 알았지, 원폭 충격 탓에 괴성을 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이들 남성은 사회적 냉대와 배척에 불신, 공허감, 희망 상실, 실업, 질병, 무력감, 자기 비하, 피해망상, 분노조절장애, 대인 기피, 과민증, 우울병 등 다양한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키우며(김동춘·김명화 외 2014, 6-80 참조) 자살 시도와 술중독, 분노·폭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는 피폭 남성의 우울감과 습관적 자해·폭력행동이 가족과 후대 남성에게도 이어지면서 악습이 재생산되는 일종의 ‘가족 트라우마’의 전이 양상이다. 이처럼 빈곤, 가정폭력, 편모편부, 병 스트레스, 원폭구호 대책의 부재, 가부장주의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관련자는 이중·삼중의 비인간화를 겪고 인격과 정체성이 말살되고 만다.

따라서 이 소설을 접한 독자는 자신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반성과 함께 소외되어 왔던 “원폭지옥”의 실상과 고통에

놀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원폭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행사되는 외상을 겪는 두 여성 증언자의 설정을 통해 원폭의 참상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남성의 모습도 의도치 않게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설의 전달력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기획 의도와 재현이 지닌 한계가 점검되어야만 원폭문제가 공론장에 진입하고 역사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원폭 같은 재난을 다룬 서사전략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게 기억하고 추모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구술을 통해 ‘이야기된 원폭 가족사’는 불행이 극대화된 ‘고생담’과, 박인옥이 마지막에 ‘원폭환우 2세’ 3대 회장이 된 것처럼 일종의 ‘인간승리의 상’이 결합된 서사이다. 여기서 박인옥의 의식을 각성 시킨 것은 합천피해자복지회관과 김형률이다. 원폭 2세 김형률(1970-2005)은<sup>5)</sup> 2002년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폭 2세의 존재를 알린 실존 인물로 ‘한국원폭 2세 환우회’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박인옥은 김

---

5) 익명의 심사자께서 다음과 같이 귀한 조언을 해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원폭 문제에서 2세 환우 김형률의 출현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오태양의 출현과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오태양 이전에 1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여 감옥에 갔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작가 김옥숙이 김형률을 중요한 매개로 설정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수십 년 간 진행되었지만, 이 운동에 참여했던 심사자가 보기에 김형률이 없었으면, 그로 인하여 원폭 문제의 절박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 김형률의 친구들이 없었으면, 원폭 특별법은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형률을 통해 원폭 2세 피해자로서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다. 김형률은 2005년 5월 29일 선천성면역글로블린결핍증으로 작고했다. 그를 추모하는 동료들은 여러 사람이 “김형률을 또 다른 글로 엮고 영상으로 표현”(전진성 2008, 10)하기를 바라고 ‘김형률의 길’에 동참하기를 염원했다. 요컨대 원폭 2세 박인옥을 각성시킨 『흉터의 꽃』은 김형률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 집필 시기 ‘원폭피해자 2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조건의 현실적 반영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형률을 내세웠을 때 원폭 서사에서 두 가지의 역효과가 야기된다. 이 작품에는 강분희가 노년에 입주하게 되는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이 설립되는 맥락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인물로 원폭 2세 김형률이 등장하면서 ‘원폭 70년’이 환기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역사’가 왜소화되고 만다. 김형률이 2002년 자기 권리를 자각하고 운동을 하기 이전, 해방 이후 2000년경까지 원폭피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분투한 피해 당사자의 존재가 완전히 탈각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내에 다양한 협조를 구해온 ‘협회활동의 역사’를 빼고 논의될 수 없다. 작가는 여러 세대의 가족 증언을 통한 ‘원폭 70년’의 생애사와 고생담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김형률 이후의 원폭 2세만을 강조하는 설정에 따라 한국 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에서 여러 원폭 1세 원폭 운동가의 존재와 활동의 역사가 사실상 부재했던 것처럼 읽히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원폭 1세의 고충

및 사회적 요구 역시 소거되었다.

또한 김형률의 강조는 남성운동가에 의해 여성운동가가 탄생하는 서사 구도를 낳았다. 공간적 배경인 합천의 협회지부와, 김형률(부산)의 설정은 다른 지역 '원폭협회 지부'의 원폭 1세 여성운동가들의 존재를 운동의 역사에서 지워버렸다. 가령 1990년 6월 11일 이맹희 할머니(원폭 1세)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문을 뿌리고 음독자살을 기도했다(조선일보 1990/06/12, 23). 1974년 원폭피해자협회 대구, 경북지부를 창설한 주역 김분순 할머니(원폭 1세)는 1993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선정한 '반핵평화인물상'을 받았다(한겨레 1993/08/08, 8). 이런 사례는 많다.

이러한 원폭 1세 여성의 존재는, 소설 속 주요 증언자 중 한 명인 원폭 1세 강분희는 '왜 각성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대변하지 못 하는 가리는 질문을 야기한다. 강분희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고 증언을 딸에게 넘겨버린다. 이후 그녀는 합천복지회관에 들어가는 행적과 치매를 갖게 되는 정황만이 드러날 뿐 그외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강분희는 초혼에서도 스스로 이혼하지 않았고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준 두 번째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동일시했다. 이와 달리 딸 박인옥은 스스로 이혼을 택하고 원폭피해자의 자의식을 각성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가족생애사를 완성시키고 독자의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생담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강분희의 성격이 규정된 셈이다. 실제 이런 유형의 삶을 살아간 여성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도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피해 여성상을 고착화하며 원폭 1세 여성 운동자를 사회적 기억화하지 못하게 했다. 사회적 기억화 작업에는 기억의 현재성과 과거 체험, 미래의 관계에 대한 숙고가 요청된다. 본질적으로 독자의 동정론을 자아내기 위한 서사가 가진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못지않게 피해 회복을 위한 운동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고 공적 기억화하는 역사적 시선이 요구된다.

### 3. 구경꾼의 당사자화와 책임론

지금까지 정현재가 원폭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폭과 피해의 실상을 알아가는 서사를 살펴봤다. 이번 장에서는 서사의 또 다른 축으로 정현재가 직접 자신의 살아온 생애와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그동안 외면해온 아버지와 자신의 장애 딸이 원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대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작고한 아버지가 원폭피해자인지 몰랐던 정현재가 자신이 원폭 2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딸 정채연이 다운증후군이 걸리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와 장애 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자각과 화해의 서사가 전개된다.

여기서 작가는 정현재가 원폭의 역사와 후유증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각성의 과정을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기획한다. 『흉터의 꽃』의

목차를 보면 “정현재-구경꾼”, “정현재-도망자”라는 부분이 눈에 확연히 띈다. 과거의 아버지와 현재의 장애 딸에게 도망치는 정현재와 소설 집필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는 정현재는 도망자이자 구경꾼이다. 하지만 그가 피해자를 목격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원폭 1세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자신은 목격자이면서 당사자가 된다. 두 번의 만남은 정현재가 ‘방관자(구경꾼, 도망자)→목격자→당사자’가 되는 자기 갱신의 과정이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에 제기됐던 목격자의 윤리 담론이 작가의 의식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소설의 목차에는 “정현재-그녀를 만나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가 배치되어 있다. 작가는 방관자 정현재가 ‘만남’을 겪고 당사자로 재탄생하게 했다. 소설의 제목이 ‘검은 강’에서 ‘홍터의 꽃’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 작가는 원폭피해자의 암울한 인생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원폭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홍터’를 아름다운 ‘기억의 꽃’으로 피우게 했다. 피해자의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반영하는 결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성한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 소설을 읽는 독자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목격자 및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성의 계기가 소설적 장치로 기획되어야 했다.

아버지를 통해 김형률은 살아 있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한 사랑, 새로운 삶이었다.

사회자가 헌화를 하고 뒤풀이 공연과 기념식수 순서가 남았다고 안내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화를 하고 분향을 했다. 흰 국화 향기와 향냄새가 극장 안을 떠돌았다. 영정 사진 속의 김형률이 구경꾼처럼 추모제에 참석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김형률의 말 없는 말을 들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왜 모르느냐고, 언제까지 당신은 당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만 서 있을 거냐고 묻는 것만 같았다. 검은 침묵의 강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한 청년의 피맺힌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죽지 않는 씨앗을 뿌리고 간 청년, 김형률이 내 앞에서 외치고 있었다.

헌화를 마치고 앞마당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몰려서서 살풀이 공연을 구경하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심지 부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느리고 구성진 피리와 대금 소리가 따라왔다. 구경꾼으로 왔다가 돌아서는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김옥숙 2017, 260-262).

정현재는 두 번의 각성의 계기를 갖게 된다. 첫 번째로 작가는 자신이 실제 참석했던 2015년 3월 ‘故 김형률 10주년 추모제’의 현장에 정현재를 두었다. 추모제는 기억의 공유의 순간이다. 주지하듯 “한국에서 죽은 자를 불러와서 달래는 위령제는, 단순히 전통적 제의일 뿐만 아니라 산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대중집회나 시위, 사회운동이 거의 모두 이 위령 행사를 매개로 전개됐다. 특히 유가족이 주도했던 각 지역의



위령제 행사는,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면서 산 사람들이 새롭게 그 억울함을 푸는 일에 나서자는 의미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김동춘 2013, 127-128). 마찬가지로 원폭피해자추모제는 윤여준 합천평화의집 원장이 말했듯이 “추모제를 통해 원폭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짐하는 계기”(조선일보 2011/08/03, PS1 A14)였다. 위령제·추모제·추모비를 통해 공유된 기억은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정신의 공동체를 만들고 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낸다. 자신이 앓는 병의 근원을 몰랐던 김형률이 ‘아픈 원폭 2세’의 정체성을 깨닫고 운동에 투신했던 역사는 방관자이자 ‘건강한 원폭 2세’조차 부정하려 했던 정현재를 부끄럽게 했다.

인옥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았다. 김형률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삶이 두 동강이 나 버린 느낌이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생을 뒤흔드는 이상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김형률이 바로 그러했다. 아위고 왜소한 몸속에 간직한 불길로 자신의 몸을 태워 진실의 한 조각을 나누어준 것 같았다. 그 불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씨였다(김옥숙 2017, 429).

두 번째로 작가는 정현재 앞에 원폭 2세 박인옥을 세운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박인옥의 고층은 어머니 강분희의 고달픈 생애사와

결합·완성되어 독자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서 박인옥의 삶은 어머니의 입을 빌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작품 중후반부에 박인옥이 증언자로서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현재는 ‘과거의 박인옥’을 넘어서 2015년 원폭 2세 환우회 회장을 대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현재는 작고한 원폭 2세 환우회 초대회장 김형률의 추모제와, 김형률의 뜻을 이어받은 3대 회장 박인옥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박인옥은 정현재에게 자신이 우연히 김형률과 만나게 되면서 ‘아픈 원폭 2세’로서 각성하고 원폭환우의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들려준다. 정현재는 박인옥을 매개로 ‘추모제에서 간접적으로 만났던 김형률’을 또 다시 접하게 된다. 또한 김형률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새롭게 탄생한 박인옥의 모습은 그 자체가 정현재에게 충격이었다.

이는 운동에서 김형률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확연히 입증하는 장면인데, 작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자각과 자기 갱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대중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목격자이자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화두를 낳았다. 작가는 이 문제의식을 자신의 소설에 투사해 목차 제목이나 소설 내용에 “방관자”, “당사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노출했다. 특히 “고통은 고통을 겪은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김형률의 당사자론의 소설 내 삽입은 그 의미의 집약적 표현이었다.

두 ‘만남’으로 정현재는 결국 아버지를 폭심지 3km이내에서 피폭당한 원폭피해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아버지가 알콜중독이 될 수밖에

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현재는 그동안 쌓인 미움을 털어낼 수 있었다. 아버지를 원폭 1세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현재가 원폭 2세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딸인 정채연은 원폭 3세가 된다. 정현재는 다행히 ‘건강한 원폭 2세’였지만 정채연은 다운증후군을 겪는 ‘원폭 3세 환우’였다. 과거 정현재는 장애딸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내에게 양육을 떠 넘겼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극복하게 되자 정현재에게 “아이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라는 편지를 보낸다. 이로써 정현재는 ‘과거의 아버지’와 ‘현재의 딸’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게 된다. 작가는 <원폭 생존자 아버지 - 건강한 원폭 2세 - 아픈 원폭 3세 딸>이라는 세대 구성을 통해 ‘건강한 원폭 2세’가 아픈 원폭 환우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원폭특별법은 원폭 2세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껍데기 법이자 누더기 법에 불과했다. 원폭 피해자 2세, 3세 환우들은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전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형률이 생전에 꿈꾸었던 선지원 후규명은 물 건너갔고 합천에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공원을 만들자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폭 피해자의 범위에 원폭 피해자 자녀들을 포함시키고, 원폭 피해자 2세와 3세에 대한 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

까지 법안 개정 운동을 다시 펼쳐나가야 했다(김옥숙 2017, 461).

주체성의 변화는 그 주체가 전달할 내용 변화를 수반한다. 원폭이 자신의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피해의 현재성’이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소설이 김형률, 박인옥, 정현재와 같이 원폭 2세의 관점을 주축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원폭피해자의 사연을 사회에 알리는 소설에는 피해자의 당대적 염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작가가 소설을 집필할 당시 희생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2016.05.29, 시행 2017.05.30)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원폭 1세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원폭2·3세는 제외되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개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경남도민일보 2017/08/14). 작가는 이러한 당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아픈 원폭 2세’의 관점을 대변하는 소설을 창작한 것이다.

요컨대 작가는 〈원폭 1세 강분희(사산) - 원폭 2세 박인옥(대퇴부부혈성괴사증) - 원폭 3세 백진수(뇌성마비 1급 장애)〉과 〈원폭 생존자 아버지 - 건강한 원폭 2세 - 아픈 원폭 3세 딸(다운증후군)〉의 일가족을 통하여 원폭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원폭특별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는 원폭 당사자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원폭 2세’ 정현재는 자신이 운 좋게 건강하기는 하지만 딸의 상태가 증명하듯 잠재적 피폭자다. 방관자였던 정현재는 우리 사회의 핵문제에 무관심한 다수의 한국인과 유비되는 효과

가 있다. 동일본대지진과 북의 핵실험, 핵발전소 문제가 집필 당시 작가에게 영향을 미쳐 소설에는 원폭이 핵무기와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되고 한국의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식의 반핵론이 제기된다. 즉 작가는 이 소설의 일반 독자가 ‘건강한 원폭 2세’는 아니지만 ‘잠재적 피해자’로서 핵 희생자에게 공감하고 반핵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작가의 시도는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화하고 공적 기억화하여 역사화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앞 장에서 서사의 한축인 ‘아픈 원폭 당사자의 구술생애사’의 미진한 점을 점검한 것처럼, 여기서는 ‘건강한 원폭 2세(정현재)의 생애와 가족 서사’가 지닌 한계를 살펴보겠다. 타자의 이해불가능성이 의미하듯 피해자를 온전히 대변하는 ‘원폭 문학’이란 장편소설 한 편으로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터의 꽃』은 원폭피해자 일가족의 고생담이며 사회의 원호와 구호 대책을 소망하는 피해서사다. 피해론은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다. 이 작품은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아주 미약하고, 피해의 비난은 작품 전체에 걸쳐 일본을 향해 있다.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침략의 역사와 합천 지역민의 이민사가 결부되어 있다. ‘가해의 일본과 피해의 한국’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오랫동안 상징해왔다. 실제로 2017년 5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의 개별 피폭자는 외국인 피폭자를 차별해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의 재판투쟁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그 재판소송은 많은 일본의 시민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양국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과 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가해와 피해의 서사를 극대화하다 보니 『흉터의 꽃』은 한일 민간의 연대의 역사가 사실상 삭제된 일국의 서사가 되어 버렸다. 일본인은 이 작품에서 합천을 ‘한국의 히로시마’로 명명하고 알린 이치바 준코와<sup>7)</sup> 김형렬 유고집을 낸 아오야기 준이치,<sup>8)</sup> 두 사람만이 아주 소략히 언

- 
- 6) 운동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소송은 원폭 1세 ‘손진두와 광귀훈의 소송’이다. 1972년 일본사회에 한국인 피폭자의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피폭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 손진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소송(1972.10.2.-1978.3.30)으로 한국인 피폭자에게도 건강수첩과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었지만, 피폭자가 일본을 벗어나면 ‘통달402호’라는 행정명령에 의해 그 권리가 박탈되었다. 이에 광귀훈이 일본에서 취득한 피폭자건강수첩이 한국 귀국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위법이라는 소송(1998.10.1-2002.12.5)을 제기해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원호법을 재외원폭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강수첩과 건강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식발표를 하였다. 2004년 4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승소해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광귀훈에게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여했다.
  - 7) 합천은 이치바 준코에 의해 ‘한국의 히로시마’로 호명되고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치바 준코는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피폭자를 돕고 있다. 이치바 준코, 이제수 옮김,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8. 이후 한국인에 의해 합천의 역사가 보완되었다(김기진·전갑생, 2012).
  - 8) 아오야기 준이치는 부산대에서 공부했고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대 객원교수였다. 그는 2002년 김형렬을 처음 만났고 ‘김형렬을 지원하는 모임’에 동참했다(김형렬 2015, 18).

급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인 피해자를 도와준 일본인 시민과, 재판 투쟁에 힘썼던 여러 한국 원폭피해자를 동시에 탈각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내에 다양한 협조를 구해온 ‘협회활동의 역사’와 일본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끊이지 않게 이끌어져 온 ‘재판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정근식 편 2005, 31). 이에 견주어보면 2002년 공식적으로 원폭 2세 김형률이 활동하기 이전 협회의 설립, 수많은 원폭 당사자의 운동과 호소·죽음, 재판, 한일의 연대 활동, 원폭복지관 건립 등이 소설에서 현재화되지 않고 기억화되지 못했다.

또한 일본에 대한 피해자의 증오의 정조가 작품을 지배하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일본의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미약하게 지적될 뿐이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방치했다. 원폭 1세 곽귀훈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에서 원폭 피해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곽귀훈 2013, 140). 이후 정부의 모든 조치는 한국인 원폭 당사자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본의 지원이 조금씩 확대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후속적 조치로 피폭자들을 지원하는 패턴이었다. 피폭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원폭 지옥”의 일상을 영위한 것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자국민과 한국인을 구분했던 일본의 ‘차별적 원폭 정책’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 사이에서 한국인 피폭자는 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체험해야 했다. 구술자들은 전쟁, 피폭보다 하루하루 일상이 더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피폭민의 일상은 “원폭지옥”화됐다.

중국적으로 『흉터의 꽃』에는 정부의 홀대와 일본의 차별정책하에서 전개되어 왔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운동의 역사’가 재현되지 못했다. 이와 관계된 분들이 『흉터의 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이 들까. 작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읽은 지금-여기의 독자는 수많은 원폭 운동의 역사와 그 투쟁의 아픔을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억울한 타자의 목소리를 ‘번역’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다.

#### 4. 나가며: 원폭과 장애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병, 빈곤, 차별, 폭력, 결혼 실패, 가족 상실, 트라우마,<sup>9)</sup> 고립 등의 갖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9) 『흉터의 꽃』에서는 원폭 경험의 충격 때문에 생존자가 부엌 아궁이의 ‘불’을 무시 위하고, 출산의 고통을 피폭의 경험과 동일시하거나, 피폭 당시 죽은 친지의 모습을 평생 떨치지 못하는 등의 트라우마가 재현되어 있다. 자식을 저세상으로 먼저 보낸 부모의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 작품 외에도 각종 증언집에는 비행기 ‘굉음’ 및 사진 찍을 때의 ‘섬광’이 주는 공포, 사망한 피폭자를 태우는 기억 등의 ‘원폭 트라우마’가 기록되어 있다.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발전, 그리고 증언이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작가 김옥숙은 원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건강한 원폭 2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원폭을 매개로 한국사회를 되돌아본 저자는 “역사교과서는 원폭피해자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피폭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면서도 원폭 피해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원폭 피해라면 오롯이 일본을 떠올릴 뿐이다. 그래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밀봉해버린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밀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결박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은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진 단층대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또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핵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무심하다”라고 역설했다(매일신문 2017/06/10). 이처럼 작가가 아버지와 고향 합천, 원폭피해자를 알아가는 여정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소설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소설의 주인공 소설가 정현재는 작가의 분신의 일종이었다.

김옥숙은 소설집의 후기에 집필을 위해 공부하고 읽었던 도서목록을 정리해두었다. 자신이 여러 책과 구술자를 대면한 것처럼 이 소설도 식민지 합천의 역사적 지식과, 구술자의 체험적 증언이 절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피폭자의 삶의 역사

는 ‘식민지 지배, 원폭 피폭, 원폭 기민’이라는 삼중고를 등에 진 사람들의 질곡의 세월이자 세상을 향해 외친 호소의 나날로 표상된다. 작가는 이러한 삶의 실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흉터의 꽃』에서 아픈 원폭 당사자의 구술생애사와, ‘건강한 원폭 2세’(정현재)의 생애라는 두 서사의 축을 설정했다. 작가는 “구술자” ‘박인옥 4대의 가족사’(〈강순구 - 원폭 1세 강분희(사산) - 원폭 2세 박인옥(대퇴부무혈성괴사증) - 원폭 3세 백진수(뇌성마비1급장애)〉)와, “기록자” ‘정현재 3대의 가족사’(〈원폭 생존자 아버지 - 건강한 원폭 2세 - 아픈 원폭 3세 딸(다운증후군)〉)의 일가를 배치한다.

여기서 핵심 인물이 원폭 2세 박인옥과 김형률인데, 박인옥은 사실상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회장 한정순을 모델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가와도 친분이 있는 한정순은 소설 속 박인옥과 마찬가지로 대퇴부무혈성괴사증을 앓았고 첫 아이는 박인옥의 첫아들 백진수처럼 뇌성마비 1급 장애자였다. 원폭을 당한 한정순의 어머니는 노년에 박인옥의 어머니 강분희처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경남신문 2015/03/01). 그렇다면 이 소설은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초대회장 ‘김형률’과, 작가가 소설을 집필하던 2015년 당시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3대 회장이었던 ‘한정순’을 모델로 한 작품인 셈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건강한 원폭 2세’ 작가는 원폭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원폭특별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법개정을 촉구하는 원폭 당사자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알렸다. 또한 우리 사회의 핵문제에 무관심한 다수의 한국인을 연상시키는 방관자 정현재를 통해 원

폭이 핵무기와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되고 한국의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반핵론이 소설 안에서 피력된다. 작가는 이 소설의 일반 독자가 ‘건강한 원폭 2세’는 아니지만 ‘잠재적 피해자’로서 핵 희생자에게 공감하고 반핵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폭 피해자에 대한 관심, 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방관자의 당사자 되기가 『홍터의 꽃』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저자의 바람대로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하고 있는가. 주지하듯, 『홍터의 꽃』은 원폭 1~4대에 걸친 피폭가족의 생애사와 ‘김형률’로 대변되는 원폭 2세의 관점이 절합된 방식이다. 2017년 5월 ‘특별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지만 원폭 유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원폭 2·3세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선지원 후규명’을 외친 김형률의 외침은 지금-여기의 현안으로서 소설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원폭 2세의 당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김형률이 원폭피해자로서 자각하고 2002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적 ‘토대’가 간과되고 말았다.

원폭피해자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만이 아니라 빼앗긴 인간의 존엄, 빼앗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왔던 ‘운동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활동과 재판운동의 역사의 배경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폭자, 일본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시민, 한국의 시민단체, 합천의 지역사회 등의 지속적인 조력이 존재했고,<sup>10)</sup> 세상을 향해 외치다가 작고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다.<sup>11)</sup> 1965년 5월 22일 민단 히로시마현 본부가 재한피폭자실태 조

사단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나 대한적십자사를 향해 피폭자 조사와 의료 구제를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피해자 등록을 실시했다. 1968년 히로시마에서 최초로 한국인 위령제가 열린 후 한국에서는 이듬해부터 위령제가 시작되었고 2011년에야 처음으로 일본인의 조력을 벗어나 한국인의 손으로 추모제가 마련되었다.<sup>12)</sup> 일본인의 민간의료지원은 1970년 6월 일본 의사와 의료진이 내한하고 이듬해 9월 20일 히로시마 원폭병원 내과과장 이시다 사다루 및 '한국피폭자 진료의사단'이 방문하면서 촉발되었다(매일경제, 1980/03/08, 7). 1972년 히로시마 핵금회의에서 한국에 진료센터를 짓기로 결정하여 1973년 12월 15일 '합천원폭피해자 진료소'가 개원하기도 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1996)은 일본정부가 1991, 1993년

- 
- 10) 재일거류민단 히로시마현 지방본부, 재일 히로시마청년회의소, 일본인 변호사, 일본 종교단체 태양회, '김형률을 생각하는 사람들', 일본의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 한국 기독교교회여성연합회, 일본 핵금회의, 히로시마 시민모금 등.
  - 11) 4반세기 동안 협회운동을 이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신영수는 1999년 5월 사망했다. 1998년 12월 15일에는 일본에서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원조하는 시민의 모임'을 창립하여 오랜 세월 회장으로 일해 왔던 마츠이 요시코(松井義子)가 죽었다. 한인 피폭자의 일본 방문 치료길을 열었던 손진두는 2014년 8월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죽음은 주위 동료 피해자와 운동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 12) 도석 스님은 재일 한국 민단의 협조를 받아 원폭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 가운데 명단이 확인된 2,914위의 무연고 영령을 우리나라 땅에 모셔와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그 영혼들이 해원하여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스님의 뜻은 도석 스님(2005)을 참고할 것.

에 ‘재한피폭자지원을 위한 거출금’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낸 40억 엔으로 준공되었다.

한국의 피해의 상을 극대화하다 보니 소설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연대의 역사가 사실상 삭제되고 일국의 서사가 되어 버렸다. “형들 씨 개인과 가족 그리고 한우회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애썼으나 형들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관심과 열정이 점차로 시들해지고 말았다”는 부산지역 운동가의 술회처럼(전진성, 2008, 271), 김형률이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특정 인물 중심의 운동이나 피해자만의 ‘당사자론’은 한계가 있다.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사회의 힘’이 없이는 운동의 지속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를 도와주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외부 세력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다. 지금도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은 이 연대자들 덕택이”(밀양 할매 할배들 2015, 10)라고 외친 밀양 송전탑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심정을 상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물론이 아니라 연대의 서사가 필요한 것이다.<sup>13)</sup>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감정.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가. 보다

---

13) 「방사선 피폭 40여년 연구 노무라 교수 6일 방한 강연」(2012.8.6), 합천평화의 집 (<http://hcpeace.tistory.com>); “日 ‘한인 原爆 피해자’ 판결, 아베부터 역사적 책무 깨달아야”(조선일보 2015/09/09);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책 보내고 싶어요’ 합천의 고령 피해자들 알려지자 60~80대 日시민들 기증 캠페인…”(조선일보 2016/01/27 참조).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김형률 2015, 86).

또한 김형률은 ‘선지원 후규명’만을 외친 게 아니었다. 그는 “한국 원폭 2세 환우로서 나의 삶에서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어린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폭 환우를 ‘동정심, 방사능과 유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 회복”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김형률 2015, 78-81).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과 싸워야 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차별을 꼽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폭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 ‘피폭자’라는 것은 사회적 낙인에 불과하게 된다. 김형률조차 2004년 12월 1일 부산대 강연회를 온 유시민 의원과의 10분 면담 이후 “사회적 차별, 사회 안전망 부재 속에서 드러내 놓기 어려운 부담감”을 토로하고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해야만 했다. 늦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 피폭자 지원에 대한 차별정책이 사라지고 국내에서는 ‘특별법’이 시행되어 원폭 1세가 지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은 급선무가 원폭 2·3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라면, 그 과제는 이제 한일 정부뿐만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몫이기도 하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어야만 제도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률이 “따뜻한 시선과 관심, 인권 회복”을 말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태도와 관점의 변화다. 그 시선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작가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바뀐 박인옥을 통해 점진적 변화가 아닌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그 해답으로 내놓고 있다. 그런데 박인옥처럼 깨달음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국민 다수에게 원폭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국민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폭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어떠한 시선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 답은 정현재에 있다. 사실 정현재도 그 ‘국민 다수’에 속했다. 구경꾼 정현재는 ‘건강한 원폭 2세’임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수용하게 되고 원폭의 관련자가 된다. 그런데 정현재는 일반적인 ‘국민 다수’의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의 아버지였다. 이것은 그가 아무것도 몰랐던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작품에서는 이 점이 부각되지 않고 ‘일반인 정현재’가 ‘건강한 원폭 2세’가 되고, 이후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처럼 처리되어 있다. 이 얘기는 정현재가 장애 딸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딸이 원폭유전 후유증을 앓아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즉 작가는 장애를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폭 후유증의 피해자와, 장애인’을 본격적으로 결부 짓는 사유로는 확장하지 못했다. 해방 후 피폭자가 귀국했을 때 사람들은 ‘흉터와 상처’를 보고 피폭자를 문둥병자로 오인하거나 장애인으로 여겼다. 소설 속 정현재의 아내가 한국에서 장애아 딸을 대하는 모멸적 태도

와 시선을 건디지 못하고 캐나다에 건너가 치유 받은 것처럼 한국에서 장애인은 지금도 여전히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한 장애학자는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장애 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장애를 다양한 인간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적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잘 드러나지 않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라고 지적했다(전지혜 2015, 6, 46, 198).

우리는 흔히 주위의 아픈 사람이 원폭피해자인지 각종 사고·사건에 의한 장애자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장애인’일 뿐이다. 원폭보다 무서운 “원폭지옥”의 ‘일상적 고통’이 경감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흉터의 꽃』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번역’하는 소명뿐만 아니라 ‘장애 사회’의 극복이란 화두를 제기하는 데 성공한 소설로 읽힌다. ~~2014~~

## 참고문헌

- 강은주. 2012.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Archive.  
 광귀훈. 2013.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 김기진·전갑생. 2012.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2013년 합천』. 선인.
- 김동춘. 2013.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 김동춘·김명화 외. 2014.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 김옥숙. 2017. 『흉터의 꽃』. 새움.
- 김형률. 2015. 『나는 반핵인권에 목숨을 걸었다』. 아오야기 준이치(靑柳純一) 엮음.  
행복한 책읽기.
- 나가자와 케이지. 2002. 『맨발의 겐』 1-10. 김송이·이종욱·익선 옮김. 아름다리  
미디어.
- 도석 스님. 2005. 『핵의 평화 생명의 평화』. 열린아트.
- 밀양 할매 할배들. 2015.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 한티재.
- 아오야기, 준이치. 2008. “김형률, 전태일의 또 다른 이름.” 전진성 편. 『삶은 게  
속되어야 한다: 원폭2세 환우 김형률 평전』. 휴머니스트.
- 월린, 마크. 2016.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정지인 옮김. 심심.
-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 2016. 『죽은 자들의 웅성임』. 장윤선 옮김. 글항아리.
- 이치바, 준코. 이제수 옮김.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
- 전지혜. 2015. 『수다 떠는 장애』. 울력.
- 정근식 편. 진주 채록. 2005.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한국여성단체연합30년의 역사』. 당대.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2016. 『천공의 벌』(天空の蜂, 1995). 김난주 옮김.  
재인.



<기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http://www.krchcwc.or.kr/>

합천평화의집: <http://hcpeace.tistory.com/>

## Abstract

### Korean A-bomb Victims and the Narrative of Testimony, Atomic bomb Literature

Kim Ok Sook, *Flower of Scar*(2017)

Lee, Haeng-seon

Kore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is article sought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Kim Ok Sook's *Flower of Scar*(2017), which deals with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 as the 'Atomic Bomb Literature' in Korea. Under the social atmosphere where the voices of various members appeal to the victims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Kim Ok Sook's novel of *Flower of Scar* dealt with Korean A-bomb victims, was published. In May of 2017, when the novel was published, it was also the month when the Special Act for Supporting Victims of Korean Atom Bombs was implemented. However, the vast majority do not know whether the 'special law' or the presence of atomic bomb victims exist. What did the novel in the year of the Special Law, which is the desire of the victims, want to convey to the reader? Also, what effect does the novel have in contrast to oral testimonies? It is the novel to be produced when the various communicators who want to share truth and empathy since the time of year have been wondering how to use it. Therefore, the literary strategy and effect of this work should be further researched.

■ **Keyword:** East Japan Great Earthquake Disaster, Sewol Ferry, Kim Hyung Ryul, Hiroshima, Hapcheon

투고: 2018/08/31 심사: 2018/10/15 확정: 2018/11/12